

플래시백

(2006년 10월 14일)

가수 싸이가 3년 고제한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결혼했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장동 W호텔에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현 KBO 총재)의 주례로 웨딩 마치를 올렸다. 방송인 손범수가 사회를 맡았고, 가수 김조한이 축가를 불렀다. 이듬해 10월 싸이는 쌍둥이 딸을 얻었다.

‘히잡 여성들’ 한국어 떤창…BTS “믿기지 않는 순간”



그들 방탄소년단이 12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해외가수 최초로 수도 리야드의 킹파드 인터내셔널스타디움에서 월드투어를 연 방탄소년단은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의 금기를 깨면서 3만 여 ‘아이들’의 환호를 받았다.

사진제공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그들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보라색 물결로 물들었다. 방탄소년단은 12일 오전(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킹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LOVE YOURSELF: SPEAK YOURSELF)를 열고 3만 명의 관객들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밤을 하얗게 불태웠다.

● ‘역사적인 순간!...알 아브땀(최고)’

방탄소년단의 사우디 공연은 개최 전부터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킹파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해외 가수가 콘서트를 여는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다. 특히 2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입장조차 금지된 곳

이었지만,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여성들이 마침내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6월 한국가수 최초로 영국 런던 웰블리 스타디움에서 진행한 공연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데 이어 이번 공연도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네이버 브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공연 시작을 알리는 곡 ‘디 오니소스’의 전주가 흘러나오자 아바야(이슬람 지역 여성들이 입는 검은 망토형태의 통옷)를 입은 여성들이 “BTS!”를 환호했다. 아바야에 히잡, 니잡, 차도르 등을 각기 쓴 이들이 동시에 아미밤(방탄소년단의 공식 응원봉)을 흔들자 일종의 ‘의식’처럼 보이기도 했다.

분위기가 점점 뜨겁게 달아오르자 사우

사우디아라비아 투어에서 새 역사 쓴 방탄소년단

2년 전 여성 금지 장소였던 킹파드 검은 망토 아미 3만명 환호 진풍경 밤하늘엔 아미 상징 보랏빛 물들어 BTS “이번 무대 영원히 간직할 것”

디의 아이들은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기도 했고, 파도타기 등을 통해 “우리는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지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춤을 추는 행위는 2년 전만해도 금기시됐다는 사실이다. 이슬람 율법과 보수적인 문화의 관습 앞에서 방탄소년단과 아이들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다.

● ‘아이들의 축제...아홉브름!(사랑해요)’

공연은 화려한 무대와 멤버들 특유의 강렬한 퍼포먼스로 3시간가량 진행됐고, 3만 여 팬들은 방탄소년단이 부른 총 24곡 전곡을 한국어로 ‘떼창’해 눈길을 끌었다. 방탄소년단이 무대 중간 미리 준비한 아랍어로 ‘아홉브름’(사랑해요), ‘알 아브땀’(최

고), ‘슈크란’(감사합니다)이라며 인사를 건네자 팬들은 더욱 열광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려준 팬들을 위한 축제의 자리다. 믿기지 않는 이 순간을 만들어준 아미에게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먼 곳에 있는 저희에게 큰 사랑 주고 응원해 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이 무대를 잊지 않고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 이번 공연을 생중계로 함께 즐길 전 세계 팬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장 주변에는 방탄소년단과 아미를 상징하는 보랏빛이 밤하늘을 수놓았고, 특히 리야드의 랜드마크인 킹덤 타워 등 고층 빌딩에도 보랏색 불이 잇달아 켜졌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가장 보통의 연애’ 강기영 “결혼이 ‘흥행 요정’ 비결이죠”

효진 누나·래원이 형 너무 잘 챙겨줘 5월 결혼...평생 ‘베프’ 생긴 기본이죠



원한다고 누구나 얻을 수 없는 타이틀이 배우 강기영(36)의 이름 앞에 붙었다. ‘흥행 요정’이란 별칭이다. 최근 출연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여김없이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붙은 애칭이다. 이런 평가에 강기영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신 흥행 요정”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드라마 ‘열여덟의 순간’을 마친 강기영을 10일 서울 삼청동에서 만났다. 그가 김래원·공효진과 함께 한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가 누적 150만 명을 돌파해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다. 강기영은 앞서 여름에도 900만 관객을 동원한 ‘엑시트’를 통해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 조정석·임윤아와 호흡을 맞춰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낸 그는 ‘엑시트’ 흥행에도 일조했다는 평가를 얻는다. 그야말로 일이 ‘술술’ 풀리는 상황. 강기영은 그 원동력을 “결혼”으로 꼽았다.

“결혼을 해서인지 사명감이 생겨요.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부터 일을 더 열심히 했거든요. 요즘 자꾸만 아내 이야기를 꺼내서 ‘이젠 그만 해야지’ 싶은데, 또 나오네요. 하하! 확실하게 아내를 만난 뒤 좋은 작품들을 만난 것 같아요.”

‘사랑꾼’의 면모는 영화 ‘가장 보통의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로맨스 장르의 힘을 과시하면서 13일 200만 여 관객을 모은 ‘가장 보통의 연애’는 강기영의 매력이 집약된 작품이다. “그동안 출연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준 저의 유쾌한 모습을 제작진이 눈여겨 본 것 같아요. 오디션엔 거치지 않고 참여한 첫 영화예요. 그래서 특별하죠. 극 중 병철이란 인물은 모든 걸 내려놓은 ‘음주 캐릭터’잖아요. 하하! ‘병철’을 뽑내는 캐릭터는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죠.”

강기영이 드라마나 영화를 넘어 최근 예능프로그램이나 라디오에 출연해 보이는 유쾌하고 발랄한 모습은 실제와 같

다. 생각을 솔직하게 꺼내는 성격이라 인터뷰 도중 간혹 실수하지 않을 거 조심스러워했지만, 그 와중에도 감출 수 없는 인간미가 드러났다. 어떤 작품을 하든 함께 연기하는 상대 배우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할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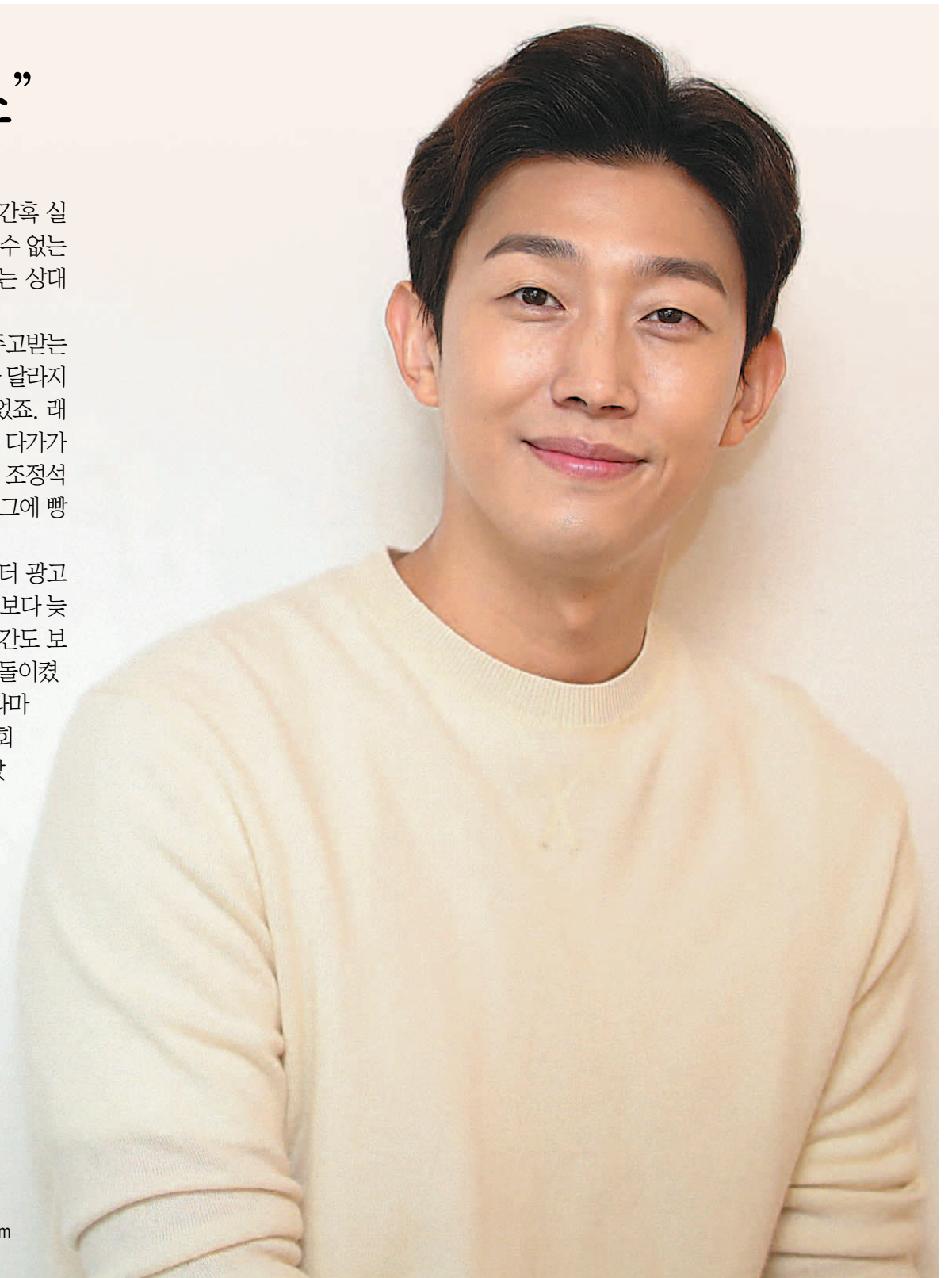
“웃을 수 있는, 웃는 현상이 좋아요. 연기는 서로 주고받는 호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케미스트리에 따라 연기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이번 영화에선 ‘좌 래원, 우 효진’이었죠. 래원 형은 ‘순정마초’ 같은 스타일이예요. 동생이 먼저 다가 가면 한없이 열어주는 형입니다. 효진 누나는 예전부터 조정석 형한테 애길 많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의 개그에 빵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놓았죠.”

2009년 연극으로 데뷔한 강기영은 연기하기 전부터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20대 중반에 연기자가 됐으니 또래보다 늦은 편이고, 데뷔 초 드라마 단역부터 시작해 고된 시간도 보냈다. 그는 “처음엔 실망과 조바심의 연속이었다”고 돌이켰다. 차츰 주목받기 시작한 때는 2015년 출연한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부터다. “다행인지 광고 일을 통해 회사원 초봉 정도는 벌 수 있어서 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올해 5월 결혼한 강기영은 한창 신혼이다. 예능에 출연해 ‘애처가’의 면모를 자주 보이는 그는 “아내와 코드가 워낙 잘 맞아 평생 같이 하는 베스트 프렌드가 생긴 기분”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해 누구보다 솔직하게 평가해주는 인물이 아내이기에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다”면서 또 한번 애처가의 모습을 드러냈다.

강기영은 영화와 드라마의 연이은 성공 덕에 최근 다양한 작품 제안도 받는다. “웃기고 편안한 역할을 주로 하다보니, 대중이 방심한 틈을 파고든 것 같다”고 자평한 그는 “깊은 감정을 보일 수 있는 역할로 대중과 만나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이해리 기자 gdf1024@donga.com



강기영 ▲1983년 10월14일생 ▲2009년 연극 ‘나쁜자식’ 데뷔 ▲2014년 tvN 드라마 ‘고교처세왕’ ▲2015년 tvN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2016년 MBC 드라마 ‘W’, ‘역도요정 김복주’ ▲2018년 MBC 연기대상 조연상 ‘내 뒤에 테리우스’ ▲2019년 영화 ‘엑시트’ 등